



“광주 공기 참 좋아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참석을 위해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이 속속 광주에 도착하고 있다. 28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서 캐나다 선수들이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고 있다. ▶관련기사 3·6·8·20·21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은행, 민영화 이후 지역에 ‘돈보따리’ 풀었다

기업·가계 대출 4600억 늘어

광주은행의 광주·전남지역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이 민영화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 광주은행장이 취임 직후 밝힌 것처럼,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수도권 등지에서 조달된 자금이 지역 경제에 대거 투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민영화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발생한 신규 대출 규모는 총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영화 이전이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 동안 신규대출 금액이 83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김한 은행장 취임 이후 무려 5700억원, 68%나 증가한 것이다.

1조4000억원의 신규대출 중 가계대출은 4694억원, 기업대출은 9308억원, 공공자금대출은 65억원 등이다. 특히, 기

업대출 금액 중 중소기업이 9034억원, 대기업이 274억원을 차지해 중소기업이 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5105억원이 증가했다. 광주은행의 총 대출잔액은 지난해 11월말 11조7999억원에서 3월 말 12조3104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대출잔액 증가분 5105억원 중 4613억원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광주은행이 지역 내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광주은행장에 취임한 김한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사회에 돈을 많이 푸는 것이 지역은행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수도권 등지에서 도 자금을 적극 조달, 광주·전남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를 아시아 문화수도로 키우겠다” 차대통령, 대선공약 잊었나 버렸나

새정치 광주 의원들 “당리당략·빅딜” 발언 성토... “기구·인력배치 현안 대통령이 결단해야”

변호사 개업 및 이전인사

저는 지난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 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여 개업하오니 앞으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북성중(25회), 광주고(28회), 전남대 법과대학(79학번), 한양대 행정대학원(2007년 법학석사)
- 청3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207기)
- 광주, 교산, 광주지검 검사
- 서울중앙 특수3부, 수원 특수부, 인천 특수부 검사
- 광주지검,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 법무부 인권과장,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
- 광주 1부장, 서울북부 3부장, 수원 1부장검사
-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변호사 김 경 석 올림

- ◆ 업무개시 : 2015년 6월 23일(화)
- ◆ 개업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70, 동산빌딩 4층 402호
- ◆ 대표전화 : 062) 224-3111
- ◆ 팩스 : 062) 224-3112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 사례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 기구 및 인력 축소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의 면담도 취소하는 등 재검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사업 자체가 자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박해자 위원장과 박주선·강기정·장병완·임내천 의원, 조영택 서구를 지역위원장인 28일 오후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행동을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자신의 공약이자, 광주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

책사업을 헌신적 취급하는 것은 국민과 광주시민이 그렇게 부르짖던 국가균형발전 저해, 호남 무시가 아니고 무엇이나?”고 비판했다.

정부의 문화전당 조직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직제와 인력배치 등 긴급 현안들은 대통령이 결단하면 즉각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고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문화전당 조직 축소와 관련한 임명 예고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등 정치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기정 의원은 “전당 운영조직 논의를 위해 행자부 장관과 광주지역 의원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장관이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29일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행자부가 이를 취소했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26일 광주를 방문한 정중섭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애초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안 대로 필요인력 423명으로 문화전당 조직을 운영해달라고 전달했지만, 정 장관은 “행자부 의견과 전체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고민”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 직제 개편 축소 재검토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나서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정치적 압박이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맛과 건강 담은 최고의 요리 제공”

함께 해요! 성공 U대회

⑤ 박항래 선수촌 총 주방장

“잘 먹어야 잘 뛰죠. 고향에서 치러지는 대형 국제행사에서 선수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게 돼 기쁩니다.”

구례 출신의 요리경력 30년의 베테랑 요리사 박항래(50) 광주U대회 선수촌식당 총주방장은 눈코 뜰 새가 없다. 선수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 3만식, 대회기간 약 40만식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리 300여명, 양양과 홀 서비스 200여명, 위생 40여명을 전두지휘하며, 안전한 급식 제공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외식업체 이취회에서 운영하는 선수촌식당은 동시에 35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대형식당이다. 메뉴는 서양

식, 동양식, 할랄식(무슬림음식), 한국식으로 매끼 80여종이 제공된다. 선수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고르게 구성, 대회기간동안 400여종의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는 “젊은 운동선수들이다보니 육류나 치즈, 햄 등을 즐긴다”며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식단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원재료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와 함께 대회기간 모든 식재료와 메뉴에 대해 철저한 검사와 검식을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THE CAPITAL OF THE CLEAN SEA WANDO

해수욕장명	개장기간
신지 명사십리	7. 03 ~ 9. 06
금일 명사십리	7. 17 ~ 8. 23
신지 동고	7. 23 ~ 8. 16
약산 가사	7. 10 ~ 8. 23
소안 미라	7. 11 ~ 8. 23
청산 신희	7. 11 ~ 8. 23
청산 지리	7. 11 ~ 8. 23
보길 예송	7. 17 ~ 8. 17
보길 통리	7. 17 ~ 8. 17
보길 중리	7. 17 ~ 8. 17
생일 금곡	7. 16 ~ 8. 17
금당 은금포	7. 16 ~ 8. 17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